

경기도 이어 정치권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본격 추진

올해부터 경기도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부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윤호중구리) 의원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발의 등 관련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기존에 발의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법안으로 담으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우선 큰 틀에서 법을 제정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의원실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안을 제정해 다음 달쯤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법안 발의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북부 내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간담회나 연초에 단배식 등에서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섰다.

지난 26일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임순택

민주당 북부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2월 중 법안 발의 예정
경기도·도의회 적극 움직임...행안부 협조 요청, 특위 구성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후보 시절 "당선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사진=김혜진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과 함께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면 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안 정책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했다.

추진단은 이달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 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해 밑그림을 그리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최근 윤종영(국힘·연천) 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힘, 민주당 의원 각각 10명씩 참여하는 방식이다.

결의안은 지난 365회 정례회를 통과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견제 및 감시·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삼고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김혜진 기자

오늘부터 '노 마스크' 실현... 언제 쓰고 언제 벗나

통학 버스 등에선 의무 착용

밀집 환경에선 착용 강력 권고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되면서 학교·학원에서 '노 마스크' 수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통학 버스 등 다수가 밀집된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실내마스크 착용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우선 유치원과 초·중·고 등 각급 학교와 학원 등에서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로 조정됐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거나 학교 건물을 이동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학교와 학원 통학 버스, 행사나 체험 활동 참여를 위해 다수가 탑승하는 차량 안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방역 당국이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환경이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도록 했다. 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합장·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와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학생들에게도 권고가 적용된다.

학생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용인의 한 중학생 유모 군은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위험률이 많이 낮아졌다는 좋은 소식인 듯하다"면서 "마스크를 3년이나 썼으니 이제 벗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한 커뮤니티에서는 "솔직히 밖에선 노 마스크로 다니고, 식당엔 들어갈 때만 쓰고 (의자에) 앉으면 다시 벗어서 (마스크

착용) 의미가 없긴 했다', '마스크랑 한 몸 돼서 벗으면 진짜 어색할 듯',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그냥 쓰고 다니겠다' 등의 글들을 볼 수 있었다.

교원들 사이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지침 전환과 함께 '학교 방역지침'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지침에 따라 학생 발열 확인과 코로나19 의심 증상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지도, 환기, 소독 등을 수시로 실시해야 해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사 임모 씨는 "요즘 식당이든 병원이든 들어갈 때 발열 체크나 명부 작성 등을 하지 않는데 학교는 여전히 해야 한다"며 "매일 학생들에게 자가 진단 어플 입력 독려나 발열 체크, 확진자 조사 등을 지속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향후 학교 현장교육 청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 당국 협의·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 학기 시작 전에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해림 기자

경기국제하프마라톤 D-27 동호회 탐방

부천 복사골마라톤클럽



2022년 복사골 마라톤대회 (2022.12.04)

지난해 12월 4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2 복사골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부천복사골마라톤클럽 회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부천복사골마라톤클럽 제공

기록 단축 보다는 건강이 우선!

과거 1, 2위 입상자 4명 배출
뛰어난 실력의 마라톤 클럽
60대가 주류인 현재 회원들의
건강 유지에 중점 두고 훈련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회원들도 지금 까지 복사골에서 활동하고 있다. 타지 회원들이 많은 복사골은 평일에는 개인 자율훈련을 진행하고 합동 훈련은 매주 일요일 부천 원미산 일대 또는 인천 대공원 주변에서 약 20km 정도를 뛰고 있다.

'부천복사골마라톤클럽'(이하 복사골·회장 이도희)은 달리기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1월 1일 마라톤을 사랑하는 10명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복사골은 부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마라톤 동호회로 현재 8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사업 계획을 작성하며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분기마다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회가 열리지 않고 합동 훈련을 진행할 수 없었던 시기에는 각자 개인적으로 훈련했다.

회원들은 함께 모여 달리는 것만 하지 못했을 뿐, 개인 훈련 결과를 공유하며 서로 응원해 주고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끈끈함과 돈독한 관계 때문인지

코로나19 확산 이전, 매년 1, 2위 입상자를 4명 정도 배출했던 복사골은 그 명성이 경기도를 넘어 충청도까지 퍼졌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마라톤 클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무리하게 기록 단축에 욕심내거나 입상을 목표로 하기보단 친목 도모와 건강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도희 부천복사골마라톤클럽 회장은 "회원들 중 많은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개의치 않고 달리는 분들이 많다"며 "복사골은 마라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모인 클럽"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기록 단축이나 입상을 위해 달리는 것도 좋지만 현재 회원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만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마라톤을 시작하면 입상을 더욱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유창현 기자

진실이 통하는 대한민국! 경기신문이 만들어 갑니다

IFEZ, Global Business Frontier
탄탄한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

all ways INCHEON

INNOVATIVE GROWING CITY